진관사에 남은 '조선 紙花 맥' 엿보다

진관사지화장엄연구소 특별전 10월 19일까지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진관사 승려들이 종이를 오려 갖가지 색의 지화를 만들고 있었다.'
〈독립신문〉 1897년 9월 30일자

서울 은평구 한문화체험관 3층
진관사가 맥 이은 지화들 소개
감로탱 속 연화지 지화로 표현
제작도구 비롯해 100여점 전시

조선 건국 초부터 수륙재를 주관하는 왕실사찰로 지정돼 여러 재에 쓰이는 장엄 재료가 발달한 진관사. 왕실에서 종이를 공급받으며 육법공양물 가운데 하나인 꽃을 생화가 아닌 지화로 변모시켜간 조선시대 지화의 맥을 엿볼 수 있는 특별전이 열렸다.

진관사지화장엄연구소(소장 도운)는 오는 10월 19일까지 서울 은평구 한문화체험관 3층에서 '자비의 향기, 꽃으로 피어나다' 라는 주제로 지화 특별전을 개최한다. 진관사 지화는 19세기 〈독립신문〉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듯이 사찰에서 봉행하는 재를 중심으로 전승돼 왔다. 특히 화학염료가 아닌 천연재료를 사용해 한지에 물을 들이고 모양을 잡아 만드는 지화는 불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소중한 전통문화로 꼽힌다.

생화를 대신하기 때문에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천하고 수행정진의 방편으로 삼는 지화는 단순한 장식이 아닌 장엄으로써 대중에게 다가간다. 종이를 잘라 물들이고 주름잡아 꿰어 꽃을 피우는 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될 만큼 만만치 않은 작업과정을 거치고, 끝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불태워 본래 청정의 정신을 되새긴다.

진관사지화장엄연구소가 마련한 이번 전시에서는 진관사가 맥을 이어온 지화 6가지를 세세히 들여다볼 수 있다.


개막식에 참석한 내빈들이 작품을 둘러보고 있다.

연화와 함께 장엄할 때 쓰이는 부들, 천상의 꽃으로 표현되는 우담바라, 연꽃을 형상화한 연화, 조선시대 감로탱에서 발견되는 다리화, 영산작법에 등장하는 작약, 끝으로 가을을 대표하는 국화가 그것이다.

지화연구소에 따르면 전시에 선보이는 작품은 지화뿐만 아니라 지화를 만드는 도구 등을 포함해 100여 점에 이른다. 1999년 초대 회장 법해 스님을 중심으로 지화회를 발족하고 이듬해 지화연구소를 창립한 진관사 특유의 염색법, 다양한 재료와 도구 등을 전승해온 노력이 곳곳에 묻어난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여겨볼 작품은 단연 '견무량수불 극락세계' 다. 무량수불의 극락세계를 본다는 뜻으로 부처님께서 "내 몸이 서방의 극락세계에 태어나 연꽃 속에 앉아있음을 관하라"는 가르침을 표현한 작품이다. 감로탱에 등장하는 연화지를 지화로 표현하고, 극락조와 왕생동자를 더해 마치 탱화의 일부를 현실로 옮겨놓은 듯한 느낌을 준다.

10월 5일 열린 전시 개막식에는 진관사 회주 계호 스님과 주지 법해 스님,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혜공 스님 등이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주지 법해 스님은 "불교는 꽃의 종교다. 부처님 재세 시에도 꽃은 깨달음과 해탈, 열반의 가피를 전하는 진리를 표현했다"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연꽃의 향기를 실천하는 보살행자로 거듭날 수 있길 발원한다"고 인사말을 남겼다.

문화부장 혜공 스님은 축사에서 "진관사 불교지화 장엄 유산은 기술이 아닌 수행 방편으로 계승돼 다른 지화 유산에 비해 차별성 있고 소중하다"며 "국가에서 보존과 계승을 책임져야 할 무형문화재로 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첫 비구니 어산어장 동희 스님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제심사위원을 역임한 임돈희 동국대 석좌교수, 김용덕 서울시무형문화재위원, 김미경 은평구청장도 함께했다.

지화연구소장 도운 스님은 "아름다운 불교문화이자 우리나라 전통 수행의 방편이기도 한 지화 전시를 통해 부처님 자비의 향기가 널리 퍼져나가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명상 모든 것, 동국대로 만나러 오세요

동국대 종학연구소, 제4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 개최

10월 13~14일 명상 컨퍼런스
진우 스님 등 전문가들 강연
10월 22일까지 프로그램 다채
육도윤회 기반한 K-명상 개발
"종단 개발 명상과 연계할 것"

명상 수행에 대한 전문 강연과 명산업전, 체험 등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소장 정도)는 10월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4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 주요 일정을 발표했다.

'2023 명상, 일상으로의 초대' 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명상엑스포는 10월 13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명상 컨퍼런스, 명상산업전시회, 실참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10월 22일까지 진행된다.

명상 컨퍼런스는 10월 13~14일 이틀에 걸쳐 무료로 진행된다. '명상과 다르마' 를 주제로 열리는 13일 컨퍼런스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인경 스님(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 이사장), 텐진 프리야다르시 린포체(MIT 윤리연구소 대표), 에도 쇼닌(국제마하야나보디야티불교학교 지도자), 피터 하비(선덜랜드대학 불교학부 명예교수) 등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명상의 올바른 전개 방향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14일에는 '명상과 일상수행' 을 주제로 컨퍼런스가 진행되며, 카르 마렉세 또모(미국 샌디에고 대학교 불교학 교수)를 비롯해 서광 스님(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백도수(한국불교학회장), 윌리엄 밴 고든(국제마하야나보디야티불교학교 운영이사) 등이 강연자로 나선다.

10월 15일은 명상의 산업적 발전 현황과 함께 방향성을 제시하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 오전 10시부터 12시 40분까지 '메타휴먼과 AI의 명상소통, 따뜻한 동반자로' 주제로 진행되는 '명상과 산업' 프로그램에서는 김병전 무진어소시에이츠 대표의 '명상과 AI, 디지털의 융합' 과 김선옥 삼성전자 스마트 워치 활용 명상 측정 솔루션 Soom 프로젝트 리드의 '스마트워치, 생체기술 발전과 명상의 미래' , 손명희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의 '소아청소년환자와 소통하는 로봇 마음챙김의 디지털 전환' 등의 발표와 대담이 이뤄진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붓다빨라 스님(붓다가야 국제수행학교 수행지도)의 '싸띠에 기반한 마음무게 증감구조' , 문일수 동국대 의과대학 신경해부학과 교수의 '뇌 과학을 통해 본 싸띠수행' , 김남주 와나컴퍼니 대표의 '일상 생활에서 하는 싸띠수행 활용' 등 싸띠명상의 과학적 분석과 일상 활용에 대한 발표와 토크가 이뤄질 예정이다.

10월 20일~22일 3일간 진행되는 '제4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 명상 체험 부스도 주목할 만하다. 동국대 팔정도를 모티브로 제작된 팔각 모양 체험부스에서는 세계 9개국 국가의 명상 관련 체험 및 전시와 공연이 다채롭게 진행된다. 특히 MZ세대 포교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저스트비 홍대선원 준한 스님의 법문 및 호흡명상(10월 22일)을 비롯해 일본의 센차도, 대만불교 명상, 튀르키예 수피 명상 등을 만날 수 있어 눈길을 끈다.

이와 함께 종학연구소는 조계종과 연계한 K-명상프로그램 개발에도 나섰다. 육도윤회도를 기반해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고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한 명상 수행을 제시하는 연구소의 명상 수행은 현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플랫폼 테스트 중이다. 2025년까지 프로그램 및 플랫폼 개발을 마치고 2026년 국제화 사업을 펼치겠다는 게 종학연구소의 목표다.

종학연구소장 정도 스님은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서울국제명상엑스포는 명상의 생활화 및 대중화, 세계화를 위해 불교전통 기반의 명상을 토대로 K-명상 문화콘텐츠 프로그램 개발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면서 "올해부터는 다양한 현대 명상의 기반이 되는 불교 교학과 수행의 측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일상의 실천수행과 연결하여 고찰해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상 속에서 언제든 실천할 수 있는 명상수행법을 만나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종단에서 개발 중인 명상 프로그램에도 참여 중"이라며 "동국대에서 개발 중인 명상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실험 · 검증하고 이를 종단적으로 연결시키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중일 기자

인문 · 심리 · 과학, 대행 사상으로 살피다

한마음과학원, 10월 14일 제8회 학술대회

'한마음과학: 인간, 생명' 주제
학제 통섭적 연구들 대거 발표

'한마음 주인공 관법' 으로 중생교화에 힘쓴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의 사상을 인문 · 심리학 · 과학기술 등을 기반해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은 10월 14일 오전 9시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3층 강당에서 '한마음과학: 인간, 생명' 을 주제로 제8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2개의 세션으로 이뤄지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대행 사상을 제반 학문들과 통섭 · 접근한 연구들이 발표돼 눈길을 끈다.

세션1에는 '한마음심리학' 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연구인 '심리학 역사의 관점으로 본 인간과 마음에 대한 고찰: 한마음심리학의 가능성 탐색(진복선, 한마음과학원)' 과 트랜스퍼스널 심리학을 창시한 로베르토 아사지올리(Roberto Assagioli)의 이론과 주인공 관법을 비교 고찰한 '대행 선사의 주인공 관법과 아사지올리의 탈동일시 과정에 대한 비교 연구(이광숙 , 한마음과학원 · 문진건, 동방대학원대학)' 가 각각 발표된다. 또한 '인본주의와 이타주의의 상호함의성: 인순(印順)대사와 증엄(證嚴)대사의 철학(치엔테 린, 대만 자제대학)도 발표될 예정이다.

세션2는 과학기술 등과 연계한 연구들이 소개된다. 세션의 주요 발표는 △주인공 원리와 한마음 원리의 관계성 연구(이상호, 서강대) △한마음과학의 관점에서 접근한 새로운 초전도체에 대한 탐색적 연구(강황진, 한마음과학원) △만성질병 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일 선원 등록자를 대상으로(한마음과학원 의학팀) 등이다.

또한 본원 3층 연화교에서는 교육학팀의 '한마음교육학 정립을 위한 연구: 대행선사 법문 분석을 중심으로' 와 법문분류팀의 '핵심어-중심 접근에 의한 대행선사 용어집 개발' 등 포스터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2023 영축총림 통도사 1378주년 개산대재

마음의 불씨를 띄우다

2023. 10. 13. ~ 10. 22. 19:00 ~ 21:00

開山

10월 21일
영축삼보 이운
괘불헌공
부도헌다례

10월 23일
자장율사 영고재 및
개산대재 법요식

10월 13일 ~ 10월 22일
'마음의 불씨를 띄우다'
• 야간경관 《무풍한송로》
• 미디어 파사드 《삼성반월교》
• 드론쇼 《삼성반월교 일대》
관람시간 : 10월 14일, 21일 20:00

야간경관 《무풍한송로》
미디어 파사드 《삼성반월교》
드론쇼 《삼성반월교 일대》
드론쇼 관람시간
10월 14일, 21일 20:00



大齋

불지종가 · 국지대찰 영축총림 통도사 World Heritage Tongdosa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Tel 055)382-7182 Fax 055)382-7196 www.tongdosa.or.kr